



봅슬레이엔 [세상에서 가장 무거운] 순간이 있다

우리는 가끔
우주 속의 무중력을
상상하곤 하죠

그런데
봅슬레이 선수들은
코너를 돌 때마다
지구 중력의 4배나 되는 힘을
견뎌낸다고 하네요

어쩌면 이보다 더 무거운 건
떨림과 벽찔, 그리고
은 국민의 기대감일지도 모릅니다

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
떨리고도 목격할 순간들 그 안에
반도체도 늘 함께하겠습니다

안에서
밖을 만들다

